

리드의 인격 개념

김종원*

주제분류 형이상학, 근대철학

주요어 토마스 리드, 인격, 인격 동일성, 심신관계, 생명

요약문

토마스 리드에 따르면 인격은 분할 불가능하므로 완전한 자기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분할 불가능성에 기초한 이러한 리드의 인격동일성 개념은 학자들로 하여금 리드가 인격개념을 정신과 동일하게 본다고 해석하게 만든다. 하지만 리드의 다른 본문들 가운데는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 신체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리드가 인격을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때때로 비일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리드에게 인격이란 외부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영향을 주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려면 인격은 신체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드의 이러한 인격개념은 분할 불가능하면서도 신체를 필연적인 요소를 가져야 하므로 일견 모순되어 보이나 인격을 신체와 정신의 단일한 결합체로서 분할 불가능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해석할 때 이 두 모순되어 보이는 인격에 관한 주장들은 양립 가능할 수 있다.

* 서강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토마스 리드(Thomas Reid 1710-1796)의 인격 개념에 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데 있다. 리드가 인격동일성에 대한 비환원주의적인 입장과 실체론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¹⁾ 리드는 ‘하나의 인격(person)으로서의 나는 나의 사고와 신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통시적으로 동일하다’는 신념을 어떠한 증거나 정당화 없이 즉각적으로 믿게 되는 일종의 기초신념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리드는 통시적인 인격동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격 개념에 대하여는 정확히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단언적으로 정의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격 개념을 설명한다.²⁾ 주로 분할불가능성

1) 리드는 잘 알려진 용감한 장교의 예를 통해 기억(의식) 중심의 인격 동일성을 주장하는 로크의 이론에 반대하고, 비환원적이고 실체중심의 인격동일성 개념을 주장한다. “과수원 서리를 해서 학교에서 매를 맞았던 소년, 자라서 장교가 되었고 첫 전투에서 적으로부터 적기를 빼앗아오는 용감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 그 이후 더 나이가 들어 장군이 되었다고 가정한 뒤. 그가 적기를 빼앗았을 때 그는 소년 시절 학교에서 매 맞은 일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 그가 적기를 빼앗은 일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 소년 시절의 매 맞은 일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또한 가정해 보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로크의 이론에 의하면 학교에서 매를 맞은 소년은 적기를 빼앗은 장교와 동일한 인격이며 적기를 빼앗은 장교는 장군과 동일한 인격이다. 그렇다면 논리 법칙에 따라 소년은 장군과 동일한 인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의 의식이 그의 소년 시절 매 맞은 일과까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로크의 이론에 의하면, 장군과 소년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장군은 학교에서 매 맞은 소년과 동일한 인격인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인격이라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이 이론 자체에 관해 우리는 다음의 몇몇 결론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나의 기억이 나를 그 일을 행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인격의 동일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 동일성은 오직 지속하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다. Thomas Reid,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 (EIP)*, ed. Knud Haakonsse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276-277쪽.

2) EIP 263쪽.

(indivisibility)에 의존하는 이러한 설명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리드 학자들은 리드의 인격을 분할 불가능한 정신(mind)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리드의 여러 저작들 가운데는 인격 개념을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그 개념과 모순되어 보이는 본문들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리드가 인격을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때때로 비일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³⁾ 필자는 이 글에서 인격의 개념을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정신과 신체의 통합적 단일체(an unified entity)로 간주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해석이 가지고 있는 비일관성의 문제를 제거하고 리드의 철학 체계 안에서 인격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세우고자 한다.

1. 리드의 방법론

리드의 인격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의 철학적 방법론을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드는 다른 경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베이컨과 뉴턴에 의해 도입된 경험적 관찰을 통한 귀납적 방법을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으로 삼았다. 리드는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철학함(philosophizing)의 참된 방법이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실제 사실들로부터, 정당한 귀납에 의해 자연법칙들을 모으고,

3) 다음의 책들을 보라. Stephen Priest, "Reid's Concept of Identity," *Reid Studies* 1(2) (1998): 57쪽과 M.A. Stewart, "Reid and personal Identity," in *Thomas Reid: Context, Influence and Significance*, ed. Joseph Houston (Edinburgh: Dunedin Academic, 2004), 27-28쪽. 그리고 Roger D. Gallie, *Thomas Reid: Ethics, Aesthetics, and the Anatomy of the Self* (dordrecht: Springer, 1998), 63-84쪽.

그렇게 발견된 법칙들을 적용하여,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EIP 121쪽)

이처럼 리드의 철학적 방법론은 당시 경험주의자들의 방법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리드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리드만의 독특한 몇 가지 방법론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리드는 귀납적 방법만을 참된 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설 연역적 방법뿐만 아니라, 경험적 가설을 포함하는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의 사용도 거부한다. 리드는 모든 가설(hypotheses)을 세상의 존재방식을 설명하려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가설의 사용은 항상 추측과 불확실성을 내포한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리드는 이러한 가설에 기초를 둔 어떠한 방법론도 철학함에 있어서 참된 방법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⁴⁾ 리드는 뉴턴의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hypotheses non fingo*)”는 격언을, 경험적 가설을 통한 발견적 방법론을 인정한 (예를 들어 에테르 이론 같은) 뉴턴보다 더 철저히 지켰다. 이러한 리드의 철학적 방법론은 최소한의 형이상학적, 경험적 가설들을 인정하면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당시의 다른 경험주의자들의 방법론과는 다른 것이었다.

둘째, 리드는 형이상학적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 자리를 상식적 신념으로 대체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리드는 스코틀랜드 상식주의 철학의 대표자이다. 리드에게 상식은 일반적인 경험을 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 -즉 아무런 증거나 정당화 없이 당연히 믿게 되는 신념들- 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선천적인 구조(constitution) 안에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식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신념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우리가 믿는 신념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가설들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철학자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닌,

4) EIP 48-50쪽, 457쪽.

학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일상적인 생활의 근거로 간주되고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신념이라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가설들과는 다르다.⁵⁾ 예를 들어, 리드는 ‘우리가 정신의 외부에 있는 대상들을 지각할 때 외부대상이 심적 대상인 관념으로 바뀌어 우리의 심적 작용의 대상이 된다’는 데카르트부터 흄에 이르는 소위 ‘관념의 길(the way of ideas)’의 지지자들의 전제를 근거 없는 철학자들의 현학적인 발명으로 간주하며 흄처럼 상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과 신념을 부정하는 것도 일종의 가설로 간주한다. 상식의 기초를 둔 리드에게 외부대상의 지각이란 관념 같은 심적 대상 없이 외부대상과 지각자 사이에서의 직접적 작용으로 간주되며, 인과법칙이란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경험적 자극(the triggering of experience)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리드에게 인과법칙에 대한 신념은 어떤 경험적인 원천으로부터 주어진 신념이 아니라 순수 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의미에서 경험에 독립적인 신념이긴 하나, 경험적 자극과 상식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안에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선천적(a priori)이지는 않다.⁶⁾) 이처럼 리드는 형이상학적인 가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상식적 신념들에 기반하여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전 이론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셋째, 리드의 방법론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리드가 인식론에서의 개별주의적 접근법(particularistic approach)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인식론에서의 개별주의적 접근법은 치즘(R. Chisholm)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치즘은 리드의 방법론을 이 접근법의 시초로 보고 있다.⁷⁾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아는 지식의 일반적인 원칙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

5) EIP 507-508쪽.

6) 리드에 의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명제는 경험 독립적이지만, 우리는 이 명제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의 구체적인 삼각형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f. EIP 419쪽.

7) Roderick M. Chisholm, "Keith Lehrer and Thomas Reid." *Philosophical Studies* 60, no. 1-2 (1990): 34-35쪽.

을 그 원칙들 안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사례들에 적용함으로써 그 사례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게 된다. 치좁은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체계론자(methodist)라고 부르는 반면에, 지식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가지지 않은 채로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판단으로부터 지식의 일반적인 원칙들(기준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을 개별주의자(particularist)로 부른다. 치좁은 어떠한 증거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알게 되는 개별적인(particular) 지식들로부터 시작해서 귀납의 방법을 통해 그 지식을 일반화함으로써 지식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 리드의 인식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리드를 개별주의자로 규정한다. 실제로 리드는 모든 정신의 작용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관찰 가능한 개별적인 것들이고, 보편자들과 일반적 속성들은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추상화하고 일반화된 결과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⁸⁾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드는 아무런 증거나 정당화 없이 단지 상식의 의해서 참이라고 알게 되는 신념들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신념들도 일차적으로는 개별적인 신념들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외부 대상을 지각하게 될 때, 이 개별적 지각은 개별적인 대상의 (개별적) 성질들에 대한 나의 개별적인 감각들로부터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지각 신념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반화된다면 나는 나의 감각과 지각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 즉, ‘내가 (대상의) 성질들을 감각하고 지각할 때, 그 성질들의 담지자로서 대상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일반적 지각 신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리드의 주장이다.⁹⁾ 이처럼 상식이 제공하는 개별적 신념들로부터 시작하여 귀납적 방법을 통해 지식의 일반적 원칙들을 발견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리드의 이론은 치좁이 말하는 개별주의적인 접근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리드의 방법론적인

8) EIP 367-368쪽. 리드는 개체뿐만 아니라 성질과 관계도 개별적인 것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므로 극단적 유명론자라고 볼 수 있다.

9) EIP 496쪽.

특징들을 엄두에 두고, 인격 개념에 대한 리드의 설명을 살펴보자.

2. 리드의 인격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

앞서 말한 바처럼 리드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인격을 정신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인격의 분할불가능성과 비연장성을 강조함으로써, 분할 가능하고 연장 가능한 신체는 인격을 소유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다. 리드는 다른 근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경험과 관찰에 근거하여 물체는 연장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실체로 파악하며, 상식과 내적 관찰(내성)을 통해 정신은 나누어질 수 없고 연장될 수 없는 실체로 파악한다,¹⁰⁾ 그렇다면 리드는 인격을 두 가지 실체 중에서 어떤 것과 동일시하는가? 인격동일성에 관한 장에서 리드는 인격을 정신과 마찬가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설명한다.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재산, 건강, 힘을 잃는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격의 어떤 부분도 잃어버리지 않은 동일한 사람이다. 설사 그가 한 다리만 가지고 있거나 팔 한쪽이 잘려 나가 버린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예전의 그와 동일한 사람이며, 잘려나간 신체의 부분들

10) “우리는 연장되고, 고정이며, 움직일 수 있고,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물체(body)라고 정의한다. (EIP 20쪽) “모든 물체들은 부분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부분들 하나하나도 그 자체로 물체이며, 다른 부분들에 의존함 없이 그 자체로 구별되어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EIP 219쪽) “나는 상식이 증거하는 바에 근거하여 내 정신은 하나의 실체, 즉 사고의 영속적인 주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동시에, 나의 이성에 근거하여 내 정신은 비연장적이며 나누어질 수 없는 실체라는 점을 깨닫는다. Thomas Reid, *An 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s of Common Sense* (IHM), ed. Derek R. Brooke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217쪽.

은 결코 그의 인격의 부분들이 될 수 없다. 만약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잘려나간 부분들이 그 인격의 공과를 공유하며, 책임과 권리를 부분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백히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일 것이다. 인격은 나누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마치 라이프니츠가 모나드(monad)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EIP 263-264쪽)

이와 같이 리드의 인격 개념은 분할 가능한 신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부분의 리드 학자들은 리드의 인격 개념을 신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들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인격은 신체 혹은 정신과 동일하거나, 혹은 신체와 정신 둘 다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다.
- 2) 인격은 나누어질 수 없는 어떠한 것이다.
- 3) 신체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반면 정신은 나누어질 수 없다.
- 4) 따라서 인격은 신체와 동일할 수도 없고 신체를 구성요소로 가질 수도 없다.
- 5) 따라서 인격은 정신과 동일하다.

이 해석이 리드의 인격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¹¹⁾ 더욱이 리

11) 다음의 책들을 보라. Keith Lehrer, *Thomas Reid* (London: Routledge, 1989), 125쪽 Rebecca Copenhaver, "Reid on Memory and Personal identit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N. Zalta (Spring, 2009 Edition), Section 3, URL= <<http://plato.stanford.edu/entries/reid-memory-identity/>>, René van Woudenberg, "Reid on memory and the identity of person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omas Reid*, ed. Terence Cuneo and René van Woudenber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16-219쪽, Andy Hamilton, "'Scottish Commonsense' about Memory,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1(2) (2003), 242, Andrew Ward, "Reid on Personal Identity: Some Comparisons with Locke and Kant, *Reid studies* 3(2) (2000): 55쪽.

드가 『인간의 지적 능력에 관한 시론』의 동일성에 관한 장에서 신체의 동일성과 인격의 동일성만을 다룬 채 정신의 동일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리드가 인격을 정신과 동일시켰다는 해석에 더 설득력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리드가 나의 ‘인격(person)’, ‘자아(self)’ 혹은 ‘나(I)’를 나의 ‘정신’과 동일시켰다고 볼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구절들이 있다.

나의 인격동일성은 내가 내 자신(myself)이라고 부르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의 지속적인 존재를 함축한다. (EIP 264쪽)

내가 의식하거나 기억하는 나의 모든 사고는, 내가 나 자신(myself) 혹은 나의 정신(my mind)이라고 부르는, ‘하나이며 동일한 생각하는 원천(one and the same thinking principle)’의 사고라는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IP 42쪽)

내가 의식하는 사고는 내가 내 자아(my self), 내 정신(my mind) 그리고 내 인격(my person)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사고라고 나는 생각한다. (EIP 472쪽)

많은 리드 학자들은 이 구절들이 리드가 인격 혹은 자아를 정신과 동일시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3. 기존의 해석과 모순되는 주장들

하지만 리드의 저작들 가운데는 인격이란 정신과 동일하다기보다 정신 이외의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절들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자. 첫째, 리드에게 정신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과 같은 순수 정신작용들의 주체인 반면에, 인격은 단순히 순수 정신작용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동을 실행하고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나의 인격동일성은 내가 내 자신이라고 부르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의 지속적인 존재를 함축한다. 이 자아(self)란 생각하고 숙고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고통을 겪는 어떤 것을 말한다. 나는 사고가 아니며 나는 행동도 아니며 나는 감정도 아니다. 나란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것이다. 나의 생각들, **행동들**, **감정들**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것들은 지속된다기보다는 잇달아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이 속한 자아(self) 혹은 나(I)는,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잇따르는 사고들과 **행동들** 그리고 **감정들**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EIP 264쪽)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행동을 실행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것도 정신 작용과 연결되어있기는 하지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순수 정신작용과는 달리, 행동을 실행하고 특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¹²⁾ 만약 어떠한 인격이 신체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리드는 행동을 단지 물리적인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인 행동, 즉 다른 인격과 의사소통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데,¹³⁾ 인격이 신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상호간에 행동을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 인격이 물질적인 신체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행동을 실행하는 것과 고통을 겪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 순수정신작용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지각과정을 설명하면서, 인

12) 리드는 정신적인 작용과 물리적인 행동을 구분하여 전자는 작용(operation), 후자는 행동(action)으로 구분한다. Cf. Thomas Reid, *Essays on the Active Powers of man* (EAP), ed. Knud Haakonsse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13, 29, 48, 49, 69쪽.

13) Roger D. Gallie, *Thomas Reid: Ethics, Aesthetics, and the Anatomy of the Self*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72쪽.

격이 물리적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인격은 외부대상을 제대로 지각할 수 없다고 리드는 주장한다.

외부대상이, 감각 기관에 직접 접촉하든지 혹은 그 대상과 감각 기관 사이에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접촉하든지 간에, 어떠한 (물리적) 인상을 감각기관위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들도 지각할 수 없다. (EIP 74쪽)

감각 기관들과 신경 그리고 뇌에 새겨진 인상들의 본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험은 우리가 이러한 (물리적인) **인상들 없이는 아무 것도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다. 지각이 이러한 인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확고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구성안에 주어진 것이다. (EIP 76쪽)

이처럼 리드에게 지각이란 항상 외부 개체를 대상으로 삼으며 우리 신체의 감각 기관과 그 위에 주어진 물리적 인상을 수반한다. 따라서 어떠한 한 인격이 물리적 신체기관 없이 외부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실체 이원론자로서, 리드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실체들과 비물질적인 실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⁴⁾ 인격(인간)은 서로 다른 이 두 실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좋은 예라고 주장한다.¹⁵⁾

14) 리드는 실체이원론자이지만 형이상학적인 가설로서 이원적인 실체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직 리드는 경험적 관찰과 내성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는 사고 작용의 주체로서의 정신과 물리적 성질의 주체로서의 물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리드는 ‘실체’라는 말 대신에 주체(subject)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15) 로크와 달리, 리드는 인간(man)과 인격(person)이란 단어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쓰지 않는다. 리드의 저작 중에서 동일성에 관한 장에서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장을 살펴보면 인격(person)과 인간(man) 그리고 능동 주체(agent)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해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Cf. EIP 262쪽, EAP31, 39, 48, 59, 109,

우리의 현재 상태를 들여다보자면 이러한 이질적인 실체들(정신과 물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신의 작용들이 신체 기관들에 의해**서 실행되기도 하고 **신체의 좋고 나쁜 성질들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IP 624쪽)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신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관찰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안에 정신과 신체 사이의 연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리드는 주장한다.¹⁶⁾ 따라서 이 주장에 따르면 인격에 대한 올바른 기술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드에 따르면, 나의 인격동일성에 대한 신념은 일반적인 인격동일성 신념에서 연역한 것이 아닌, 상식에 기초한 개별적인 기초신념이다. 타인의 인격동일성에 대한 신념과 일반적인 인격동일성에 대한 신념은 이 개별적인 신념으로부터 추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격 동일성은 내가 내 자신이라고 부르는 나누어 질 수 없는 것의 지속적인 존재를 함축한다. (EIP 264쪽)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인격을 타인의 인격으로부터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는가? 만약 나의 정신만이 인격을 구성한다고 가정해 보자. 어떻게 나의 정신을 물리적인 신체에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신과 구별해 낼 수 있는가? 경험주의적 전통을 따르자면, 어떤 하나를 다른 것과 구별하거나 혹은 개별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지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체가 없다면 어떻게 나의 정신을 다른 사람의 정신과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물체에 고정되지 않은 정신들 간의 구별은 근거 없는 추상

174, 199쪽.

16) Ryan Nichols, *Thomas Reid's Theory of Perception* (Oxford: Clarendon Press, 2007), 25쪽.

화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리드의 경험적 방법론과 일인칭적인 인격 개념 설명에 따르면 인격이 정신과 동일하다는 해석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다섯째, 리드는 자신의 사상에 영향을 준 프랑스의 상식주의 철학자인 클라우드 부피에(Claude Buffier 1661-1737)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나의 인격 안에는 비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있다는 부피에의 주장에 동의한다. 리드가 소개한 부피에의 상식의 원칙들 중 나의 인격 개념과 연관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이 우주에는 나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 즉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 3) 내 안에는 내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신체라고 부르는 지성이 아닌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EIP 524쪽)

이 원칙들을 보면 리드는 확실히 나의 인격이란 신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여섯째, 리드는 몇몇 구절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격이 정신과 신체의 결합이라고 기술한다. 리드가 프리스틀리(Priestley)의 물질주의를 비판할 때, 우리가 인격에 대해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아는 바란 인격이 정신과 신체라는 두 이질적인 실체의 결합체라는 사실이라고 리드는 설명하고 있다.¹⁷⁾ 또한 리드는 미와 탁월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인격이란 정신과 신체를 소유하는 어떤 것으로 기술한다.

시에서, 그림에서 그리고 음악작품에서 고상한 취미를 만족시키는 것은 참된 탁월성이며, 한 인격에 있어서 그 인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것은 **정신의 완전**

17) AC 235쪽.

함(도덕적 혹은 지적인 의미에서)과 **신체의 완전함**이다. (EIP 601쪽)

지금까지 우리는 리드에게 있어서 인격이란 정신과 동일하다는 기존의 해석과 모순되는 리드의 저작 안에 있는 다양한 구절들을 살펴보았다. 만약 리드의 인격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맞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리드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인격 개념을 부주의하게 사용했거나 자신의 정의와 모순되는 설명을 사용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4. 비일관성을 제거한 새로운 해석

그러면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세운 리드가 인격 개념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진술들을 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필자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면서 리드가 인격 개념에 대해서 모순되는 주장들을 진술했다고 보기 보다는, 리드의 인격 개념에 대한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격을 정신과 육체의 결합체로 간주하고 정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요소도 그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해석할 때, 인격은 정신과 동일하다고 보는 해석보다 인격 개념에 대한 리드의 복합적인 사고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리드의 저작 안에는 여전히 인격이 정신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때, 이 구절들을 새로운 해석과 모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없이는 새로운 해석도 기존의 해석과 동일한 일관성의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격을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 보는 새로운 해석도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들과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2절에서)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연관구절들을 이 맥락에서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로 리드가 ‘나의 인격’, ‘내 자아(self)’ 혹은 ‘나(I)’를 ‘나의 정신’과 동일시켰다고 해석되는 구절들을 살펴보자. 어떻게 나의 인격이 나의 정신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과, 나의 인격은 나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요소도 포함한다는 주장이 양립 가능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러한 구절들이 위치해 있는 문맥과 단어자체를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인격을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 보는 새로운 인격 개념과 이 구절들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의 인격’, ‘나의 자아’, ‘나의 정신’은 각각 조금씩 다른 외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신’이란 모든 생각의 주체이자 담지자로서 나누어 질 수 없고 연장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과는 달리, 리드에게 있어서 자아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다, 즉 자아란 때에 따라 정신, 혹은 신체, 혹은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를 지칭한다. 즉, 리드가 ‘분할 불가능한 자아’, ‘자아의 의식’, ‘자존감(self-esteem)’, ‘자제심(self-government)’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때 자아는 정신을 의미하며,¹⁸⁾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 이나 ‘자기애’(self-love)같은 단어들이 사용되는 문맥에서는 자아는 신체적인 의미로 사용된다.¹⁹⁾ 또한 리드는 자아를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서 온전한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 신체를 도구로써 먼저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주 안에 있는 어떠한 물체도 움직일 수 없으며, **우리자신(ourselves)의 사고와 움직임(thought and motion)** 없이는 다른 인격 안에 어떠한 사고도 심어줄 수 없다. (EAP 39쪽)

그러므로, 나의 인격동일성은 내가 내 자신(myself)이라고 부르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의 지속적인 존재를 함축한다. 이 **자아(self)란 생각하고 숙고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고통을 겪는 어떤 것을 말한**

18) EIP 42, 264, 602, EAP 52, 67, 77, 97, 98, 118, 130쪽.

19) EAP 77, 95, 116쪽.

다. (EIP 264쪽)

이처럼 리드에게서 ‘자아’는 문맥에 따라 다른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면 리드에게 ‘인격’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필자는 앞서 (3절에서) 살핀 여러 구절들에 근거하여 리드의 인격 개념이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서의 개체를 지칭한다고 해석한다. 만약 인격이 이러한 결합체라고 가정할 경우, 인격과 정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럴 경우, 정신은 인격 안에 포함되므로 정신에 속한 모든 것은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인 인격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사고들은 내가 나의 정신이자, 인격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사고들’이라는 리드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와 기억, 의식과 같은 작용들은 정신에 속한 작용이자 인격에 속한 작용임으로 인격과 정신이 동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리드의 ‘자아’ 개념 역시, 문맥에 따라 때때로 인격과 동일시되거나 정신과 동일시 될 수 있으므로, 정신과 자아와 인격을 동일하게 보는 구절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²⁰⁾ 관련구절들을 이처럼 생각할 경우, 인격을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 간주하는 새로운 해석과 이 구절들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 인격은 분할 불가능한 것이므로 인격은 정신과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격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나누어질 수 없고 영속적인 것인 반면, 신체는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인격 개념은 나누어질 수 있는 신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격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을 경우 무력화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리드는 실체 이원론

20)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나의 사고들 $\subset$ 나의 정신 $\subset$ 나의 인격이라고 보거나 (내 자아가 신체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의 사고들 $\subset$ 나의 정신 $\subset$ 내 자아 $\subset$ 내 인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이다. 실험과 경험에 기초한 귀납적 방법을 통해 리드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파악 가능한 실체는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인 실체이며,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 즉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만이 물질적인 물체와 비물질적인 정신간의 결합체로서의 개체들이라고 보고 있다. 부분들로 계속 나누어질 수 있는 비활성의 물체들과는 달리, 물질적인 물체와 비물질적인 정신의 결합체로서의 개체들은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져서 이 결합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다고 리드는 주장한다.

물질세계의 여러 현상들을 비교하여 보자면, 물질의 비활성으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우리의 관찰아래 있는 모든 비활성의 물체들은 항상 비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움직여지며, 둘째, 식물들과 동물들(인간을 포함한)은 비물질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고, 이 신체와 정신의 결합은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고, 죽으면 깨진다.²¹⁾

이처럼 리드는 인간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들도 정신과 신체가 결합된 개체들로 간주하며, 이 결합의 결과로 생명의 원천(principle of life)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만약 누군가가 비물질적인 정신이 어떻게 물리적인 물체와 결합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결합되어 있는 개체들뿐이고 결합과정은 관찰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리드는 주장한다. 단지 리드는 당시의 화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학과의 유비를 통해 이러한 결합의 결과에 대해 유비적으로 이야기 할 뿐이다. 즉,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물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

21) Thomas Reid, *Thomas Reid on the Animate Creation: Papers Relating to the Life Sciences* (AC), ed. Paul Wood.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5), 218쪽.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합체인 물에는 산소의 성질도 수소의 성질도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²²⁾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체와 정신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활성의 개체들은 신체와 정신의 결합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체와 정신의 결합되었을 때 결합의 결과로 신체의 성질도 아니고 정신의 성질도 아닌 생명이란 새로운 결합체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리드는 주장한다.

만약 누군가 생명이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명료한 대답을 주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결과는 하나의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으므로, 생명 있음의 (현상적) 결과들에 의해서만 생명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이 원인으로서의 생명은 우리의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 언제 그 생명이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고, 언제 그 생명의 순간이 끝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떤 개체들은 우리의 감각들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작용들을 나타내지 않은 채 오랫동안 휴지상태로 있을 수 있다. 비활성 물체들에게 없는 이러한 결합을 가진 동식물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비활성 물체들은 본성상 생각에 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들(parts)로 구성되어 있어 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의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비활성의 물체들처럼 생명도 나누어 질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직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생명의 일부분(a part of life)’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생명의 원천(the principle of life)은 **하나이며 나누어질 수 없는**(one and indivisible) 것이다. (AC 224쪽)

이처럼 리드는 정신과 신체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생명을 나누어질

22) AC 236쪽.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생명은 물질적인 신체에 속한 것도 비물질적인 정신에 속한 것도 아니다. 생명은 오직 정신과 신체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며, 이 결합이 깨졌을 때 사라진다. 따라서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부분들로 나누어져 존재할 수 없다. 절단의 방법에 의해서 재생산을 하는 플라나리아의 경우에서조차 생명은 분할되지 않는다.²³⁾

리드는 이런 결합체들 가운데 살아있는 능동주체(living agent)를 인격으로 간주한다. 사실, 리드의 살아있는 능동주체라는 표현은 비숍 버틀러로부터 가져온 표현이다.²⁴⁾ 하지만 살아있는 능동주체를 정신으로 간주하는 비숍 버틀러와는 달리, 리드는 살아있는 능동주체를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 상정한다. 즉, 리드에게 나의 생명은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인 나의 인격의 표지이다. 물론, 나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는 채 나의 신체가 분리되는 것은 가능하다. 내 팔과 다리가 잘려 나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동일한 나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심각하게 상처를 입어서 생명을 잃는다면, 정신과 신체의 결합이 깨졌으므로, 하나의 인격으로서 나는 더 이상 동일한 나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격은 나누어 질 수 없는 것으로 마치 모나드와 같다’는 리드의 주장은 어떠한가? 앞에서 말한 바처럼 리드는 인격을 언급할 때, 인격을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유비시킨다. 물론 리드가 모나드에 기초한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드는 인격이 가지고 있는 분할불가능성이 모나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인격은 마치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같다’는 주장과 인격을 정신과 신체의

23) 리드는 자연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개체발생의 방법들이 있다고 말한다. AC 225쪽.

24) Joseph Butler, *The Analogy of Religion Natural and Revealed, to the Constitution and Course of Nature. To Which Are Added Two Brief Dissertations: I. Of Personal Identity. II. Of the Nature of Virtue.* (The 5th edition). (London: Printed for Robert Horsfield, 1765), 439-450쪽.

결합체로 보는 새로운 해석은 서로 양립 가능한가? 필자는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리드는 모나드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로서 정신뿐만 아니라 물체도 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이프니츠는 정신뿐만 아니라 물체를 포함하는 전 우주가 모나드-창조자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할 때부터 특정한 능동적인 힘과 지각하는 힘을 부여 받은 단순 실체-들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했다. (EIP 188쪽)

즉, 리드에 의하면 라이프니츠는 비연장적인 형이상학적인 한 점(an unextended metaphysical point)으로서의 모나드가 비연장 실체인 정신뿐만 아니라 연장 실체인 물체 또한 구성한다고 믿었고, 따라서 이것이 모나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면 리드가 모나드와 인격을 유비시킬 때, 인격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만을 가지고 리드가 인격과 정신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더욱이 리드가 인격동일성과 인격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정신적인(mental)’, ‘정신(mind)’, ‘비물질적(immaterial)’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자아(self) 인격(person) 나(I)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격을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리드가 생각했다는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처럼 인격을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 보는 새로운 해석과 인격은 나누어 질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리드의 주장은 결합체로서의 인격 개념 안에 생명의 분할불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함께 진술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이상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1) 하나의 인격은 정신과 신체의 결합일 수 있다.
- 2) 이 결합의 결과로써, 하나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생명을 자신의 고유한 성질로 가지는 인격이 나타난다.

- 3) 비록 결합체로서의 인격의 한 구성요소인 신체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인격을 존재하게 만드는 생명은 결합이 깨질 때까지 하나의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유지된다.
- 4) 그러므로 인격이 정신과 신체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유지될 때까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인격과 정신을 동일시하는 리드의 인격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드 철학 체계 안에서의 비밀관성 문제를 살펴보고, 인격을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 보는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리드의 이론체계와 보다 정합적인 인격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주의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리드에게 있어서 인격 개념은 언제나 나의 인격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리드에 따르면, 한 인격으로서의 나는 내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결심하며, 행동하며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알며,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존재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타인과 구별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지칭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인격이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라는 새로운 해석은 인격과 정신을 동일시하는 기존의 해석보다 리드의 방법론에 더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신체가 없는 한 인격은 개별화 될 수도 없고, 어떠한 물리적 행동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리드의 인격 개념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리드에게 있어서 인격은 분할 불가능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신체의 결합체로서의 개체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Butler, Joseph. *The Analogy of Religion Natural and Revealed, to the Constitution and Course of Nature. To Which Are Added Two Brief Dissertations: I. Of Personal Identity. II. Of the Nature of Virtue.* (The 5th edition). London: Printed for Robert Horsfield, 1765.
- Chisholm, Roderick M. "Keith Lehrer and Thomas Reid." *Philosophical Studies* 60, no. 1-2 (1990): 33-38쪽.
- Copenhaver, Rebecca. "Reid on Memory and Personal identit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N. Zalta (Spring, 2009 Edition), URL=<[http://plato.stanford.edu/entries/reid-memory - identity/](http://plato.stanford.edu/entries/reid-memory-identity/).
- Gallie, Roger D. *Thomas Reid: Ethics, Aesthetics, and the Anatomy of the Self.*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 Hamilton, Andy. "'Scottish Commonsense' about Memory.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1(2) (2003): 229-245쪽.
- Lehrer, Keith. *Thomas Reid.* London: Routledge, 1989.
- Nichols, Ryan. *Thomas Reid's Theory of Perception.* Oxford: Clarendon Press, 2007.
- Priest, Stephen. "Reid's Concept of Identity, *Reid Studies* 1(2) (1998): 49-57쪽.
- Reid, Thomas. *Thomas Reid on the Animate Creation: Papers Relating to the Life Sciences (AC)*, ed. Paul Wood.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5.
- Reid, Thomas. *Essays on the Active Powers of man (EAP)*, ed. Knud Haakonsse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 Reid, Thomas.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 (EIP)*, ed. Knud Haakonsse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 Reid, Thomas. *An 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s of Common Sense (IHM)*, ed. Derek R. Brooke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 Stewart, M. A. "Reid and personal Identity," in *Thomas Reid: Context, Influence and Significance*, ed. Joseph Houston (Edinburgh: Dunedin Academic, 2004), 9-28쪽.
- Ward, Andrew. "Reid on Personal Identity: Some Comparisons with Locke and Kant. *Reid studies* 3(2) (2000): 55 - 64쪽.
- Woudenberg, René van. "Reid on memory and the identity of person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omas Reid*, ed. Terence Cuneo and René van Woudenberg, 204-221쪽.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Reid on Personhood

Kim, Jong Won (Sogang Univ.)

Reid believes that a person can have a perfect identity, since a person is indivisible. Thus, it is widely accepted among Reid scholars that Reid's notion of a person is identical with the mind. There are several passages in Reid's texts which support this position. However, there are also considerable textual evidence which shows that a person requires bodily parts. In fact, a person should *be affected* by external physical environments, *exert* active power, and *be responsible* for his physical action. In order for a person to interact with external world properly, it is essential for him to have bodily elements. If so, there is an inconsistency within Reid's texts in relation to the notion of a person. Then, which one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Reid's notion of a person and how can we solve this inconsistency? I believe the notion of a person is involved in not only the mind but also the body, and there is a consistent way of understanding Reid's notion of a person. That is, by suggesting that a person as the unity between mind and body can be indivisible, the notion of a person can include both mind and body. Indeed, only this unity which has *the principle of life* as its own characteristic can be one and indivisible, until the unity is broken.

Key words: Thomas Reid, personhood, personal identity, mind and body, the principle of life

김종원 E-mail: kimjw74@gmail.com

투 고 일	2015년 07월 17일
심 사 일	2015년 07월 30일
게재확정	2015년 08월 12일